

여섯 번째 이야기

인간극장



특집 광주시민 23인 인터뷰 화보집

광산
구보

2020년 10월 VOL. 317

광산 구보

광산구보 통권 317호 발행일 2020년 10월 발행 광주광역시 광산구
편집 조보실 발행처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산로 29번길 15(농정동)
전화 062)960-8047 팩스 062)960-8709 시각디자인 김중권
우료 등록신청 062)960-8357

제법 선선한 바람결에 '광산 인간극장'을 실어 보냅니다. 가까운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로 이 계절, 모두의 마음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남의 이야기가 더해져, 가을만큼 깊은 공감의 광산 들녘에 황금빛으로 넘실거리길 바라봅니다.



자식보다 도서관 걱정이 먼저야

신창행복도서관에서 꿈 펼치는 임동열 씨



매일 아침 10시, 천 권이 넘는 책에 일일이 라벨을 붙이는 일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다 늙어버린 이 주름진 손으로 말이다. 늦깎이 사서로 도서관에 온갖 애정을 쏟아온 지도 벌써 6년째. 돌이켜보면 도서관을 꾸리는 일은 지난 40여년의 교직 생활과 많이 닮은 것도 같다. 헌 책을 관리하고 새 책을 들일 때마다 새로 들어오고 떠나가던 제자들 생각이 많이 난다. 책도 사람만큼 관심과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도 마찬가지. 책 한 권을 들일 때에 종이 상태부터 내용까지 꼼꼼하게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도 엄격한 교직생활에서 몸에 밴 습관이다.

내 나이 정도 되면 자식 걱정과 손주 보는 재미가 전부인 사람이 많지만, 내가 살아온 삶은 지금까지도 나를 한시도 가만있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6·25도 거쳐간 지난 세월동안 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도무지 꿈을 꿀 수 없는 시절이었다. 항상 누군가를, 무언가를 책임지고 살아왔기에 하루하루의 현실을 버텨내기 바빴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서 책들을 뒤적이다보면 자꾸만 꿈이 생긴다.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은 책만 보는 곳이 아니다. 사람과 책을 만나고 문화를 누리는 생활공간이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살기 급급한 시대가 아닌 꿈을 꾸는 시간, 남녀노소 누구나 오순도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돈 한 톨 받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다.

75세. 신창동. 신창행복도서관장. 40년 교직생활에서 몸에 밴 책임감과 노하우로 작은도서관을 작지만 확 찬, 따뜻한 공간으로 꾸려간다.

#작은도서관 #노년의꿈 #책스타그램 #시민사서

글 백수자<작가> 사진 최성욱<사진가>

무대에 설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껴요

꿈꾸고 도전하는 육남매 엄마 김재나 씨

넷째 낳고 나서 근력이 약해지는 희귀 난치병 '중증근무력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에어로빅을 전공했고, 한 때는 경호팀장을 했을 정도로 체력과 건강에는 자신 있었는데 믿을 수 없었죠.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중환자실 신세까지 지게 되자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병을 이겨낼 방법을 찾았어요. 아이들에게 누워있는 엄마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헬스 트레이너와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작년 9월에는 WSTMS(월드스포츠탐모델소) 스포츠탐모델 1위도 했답니다. 근육이 잘 생기지 않아서 남들보다 몇배 이상 노력해야 하지만, 체력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니 운동에 더 집착하는 것도 있죠. 운동을 하다가 힘들면 기분이 좋아요. 움직일 수 있는거니까. 한참 아플 때엔 아이들 안아주고, 목욕시키기도 힘들었거든요.

육남매는 제 삶 자체예요. 25살에 첫 애를 낳았는데, 친정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아이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우며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꿈을 꾸고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늘 도전해요. 아이들에게도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해주는 편이에요. 엄마처럼 행복한 일을 하다 보면 수입이든 전문성이든 따라오지 않겠냐고. 우리 육남매도 목표를 세웠을 때 포기하지 않고, 늦더라도 책임감 있게 꼭 갔으면 좋겠어요.



40세, 산월동, 육남매 엄마이자 직장인, 피트니스 선수로 1인3역을 해내는 원더우먼. 회원들에게 운동 알려주는 게 너무 재미있으며 피트니스센터 운영이 목표다.

#육남매맘 #김재나트레이너 #피트니스선수 #에어로빅강사

마을 활동하며 인생 황금기 만났죠

신가동 '예술창고' 이끄미 진효령 씨

밥 짓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여느 주부나 다름없는 삶이었어요. 일곱 달 만에 막내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나선 많은 것들이 변했죠.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가 살아갈 마을과 공동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신가초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에 마을교육공동체의 일환인 신가동 자원봉사 캠프를 들어갔어요. 캠프 거점으로 옛 비아농협 창고에 '예술창고'가 문을 연거죠. 당시엔 가사에만 전념하던 터라, 워킹맘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캠프장으로 선출됐어요.(웃음)

예술창고에서는 어르신들 한글공부방, 어린이들 '인권지도' 만들기, '청소년 마을 기자단', 환경기 여성들을 위한 강연, '환경동아리' 마을 정화 활동 등 프로그램도 다

양하게 진행했어요. 노력을 인정받아 캠프는 광주시장상을, 청소년 마을기자단은 광산구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함께하는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 다시는 오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술창고'가 있는 곳은 재개발 대상지역이라, 변동사항이 없다면 오는 12월 허물어져요. 주민들 손으로 직접 만든 공간이고, 공동체가 모이는 마지막 공간이 사라진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죠.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을마다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글 정겨울<광주매일신문 기자> 사진 박천휘

56세. 신가동. 신가동 자원봉사 캠프장. 담양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언니와 함께 광주로 이사왔다. '예술창고'를 이끌며 마을활동에 앞장선 지 5년 차.

#예술창고 #마을밥상 #인권교육



여자 야구의 덕업일치, 제가 이뤄볼게요!

최연소 국가대표 상비군 육성 선수 한수진 양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야구를? 여자애가? 라고요. “좋아서” 세 글자 대답이 다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 따라 처음 야구를 하면서 재미 붙였고, 광산구 리틀야구단에 들어갔죠. 남자 애들밖에 없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야구 자체에 흠뻑 빠졌으니까요. 제가 잘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를 맞았을 때의 그 희열이란! 난이도 최상의 마지막 시험 문제 정답을 맞힌 기분일까요?(웃음)

평일은 학교 온라인 수업 듣고, 학원가고, 공부 하고, 아빠의 잔소리를 듣는 것까지 다른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일과를 보내요. 주말은 완전히 달라요. 온전히 야구를 위한 시간이거든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당진, 연천까지 가는 훈련도 부지기수예요.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근육통은 조금 힘들지만, 야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건 개의치 않아요. 사실 야구를 할 만한 공간을 주변에서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운동장을 전전긍긍하곤 해요.

지난 6월엔 광주·전남 여자 최초, 최연소 국가대표 상비군 육성 선수로 발탁됐어요! 자신감도 얻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기량을 높여야겠다는 마음도 먹었죠. 하루에 70~80개 던지던 공을 이젠 100개씩 던지고 있어요. 거창한 꿈보다는 지금은 그저 부상 없이 오랫동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야구공을 잘 던지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글 백수지<작가> 사진 최성욱<사진가>



16살. 서구 유촌동. 유일하게 '프로 여자 야구'만 없다. 야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체험해 볼 기회조차 없는 것도 현실. 우리나라 여자야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광산구리틀야구단 #대한민국여자야구파이팅



32세, 북구 신용동, 광산소방서 비아119안전센터 소방사.
소방관으로 근무한지 벌써 3년차. 소방교 진급 시험을 위해 공부중.

#조선소 #공시족 #소방공무원

회사원에서 소방관으로, 이유 있는 전업

시민안전 위해 뛰는 광산소방서 김정제 씨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해 조선소에서 품질관리직으로 취업했다. 거제도를 거쳐 목포에서 시작한 회사 생활은 썩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의 이득만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서른 살을 한 해 앞두고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 8개월 만에 전업의 꿈을 이뤘다. 운이 좋았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이 크다. 비아센터의 근무 패턴은 24시간 근무 후 이틀을 쉬는 식. 아침 8시 반에 교대를 하고, 9시부터 차량 점검과 집중 훈련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언제라도 벨이 울릴 수 있어 항상 출동태세로 긴장한다. 쉬는 날에는 부족한 수면을 취하고, 평범하게 보낸다. 집

에서 잠을 자다가 밥솥에서 취사 완료 알림이 울리면 놀라서 깨는 일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라 여긴다.

막상 불을 마주할 때는 무서운 마음이 들새가 없다. 대원들과 함께 한시라도 빨리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불을 다 끄고 나면, 화마가 얼마나 무섭고 센지 실감하곤 한다. 주민들도 일상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아직 센터에서 막내인 나는 앞으로 들어올 후배가 기다려진다. 선배로서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후배를 가혹처럼 이끌어주고 싶다. 내가 선배님들께 든든함을 느끼고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글 김우리<자유기고가> 사진 김현

비워내는 건 인생을 바꾸는 작업이다

정리해주는 여자 더심플 대표 오경미 씨

내가 하는 일에는 늘 '오지라퍼' 소리가 뒤따른다. 수년간 시민단체에 속해있기도 했지만, 이젠 타고난 성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웃은 기증하고 쓰레기는 버린다는 소신 하나로 시작한 정리정돈이 지금의 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 미니멀 라이프 시대를 한 발 먼저 앞서가고 있던 것이다.

흔히 사람들이 쉽게 비워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필요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그리고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억에 매달리는 습성, 마지막으로 게으름이다. 안타깝게도 취약계층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비움 자리'를 만들어주면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새 삶을 찾은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그것만으로 내가 정리해주는 여자로 살아갈 이유는 충분하다.

지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 미래에 빚을 지지 않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지금의 지구칫솔이 탄생했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주구장창 "오대표 같은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와야 하는데" 소리만 들다가 최근엔 "오대표 같은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왔어" 한 마디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나의 믿음이 점점 더 많은 이에게 통하고 있다.

글 백수지<작가> 사진 최성욱<사진가>



52세. 우산동. 공간정리는 물건정리가 아닌 마음의 정리다. 가족 전체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발전되기를.

#정리수납의신 #지구칫솔
#미니멀라이프 #비움자리

바람에 흔들흔들 흔들립니다
쓰러질 듯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중심을 찾는 코스모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가을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57세. 쌍암동. 2016년부터 매달 100만 원 이상씩 후원 중.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후원처 두 곳을 더 늘려, 가정 당 20만 원 상당 열 가정에 후원을 하고 있다.

#IMF #방호벽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탄탄한 방호벽처럼 누군가의 버팀목이고 싶어요

매달 나눔 실천하는 상동방호시설 대표 박도진 씨

도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산을 절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절개지의 돌이 굴러 내리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방호벽이다. 2002년부터 광주지역을 거점으로 전국에 방호시설 공사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나에게도 사회에도 큰 위협이었다. 가정의 실직과 연이은 가정파괴가 사회를 흔들었다. 보험회사 영업소장이었던 나도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회사를 나와 다른 생계를 찾아야 했다. 그때 여력만 된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리라 다짐했다.

회사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내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그 다짐을 실천하기로 했다. 2016년 광산구에 후원 의사를 밝힌 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의 연계를 통

해 점차 후원 가정을 늘려가고 있다. 주로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후원한다. 한창 꿈을 가질 때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물론 우리 업체도 발주처 공사 상황에 따라서 시공이 무산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날씨 영향도 받는다. 하지만 나누는 일이 곧 나의 행복이고, 우선순위는 후원이다. 매일 밤 잠 자리에 누울 때 마음속으로 바란다. 어딘가에서 방황하며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기를.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돕고 있는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살면서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글 김우리<자유기고가> 사진 김현



20세, 서봉동,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ODA가다는 광산구와 공동협력해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6년
부터 총 3탄의 그림책을 출간했다.

#간호학과 #보건봉사활동 #미스터브러쉬브
러쉬 #베니의비밀

선한 영향력 전하는 의료인을 꿈꿔요

그림책 만드는 청년 조혜성 씨

2015년 메르스가 터졌을 때, 환자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간호사를 꿈꿨어요. 중2때부터 꿈꿔왔기에 망설이지 않고 간호학과를 지원했죠. 지금은 간호대 국제개발 협력 동아리 'ODA가다'(오다가다)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 전 지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국내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인 동아리예요. 대학생할 동안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글로벌 건강교육그림책 제작, 교육봉사, 인식개선 캠페인, 스테디와 감염병예방 서포터즈 등의 활동을 하고 있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면서 사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무척 보람차요.

광산구 운남어린이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주제로 초등학교 대상 보건교육도 했어요. 동아리에서 제작한 건강교육 그림책을 활용하여 구강·손씻기 교육과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기침 예절교육을 진행했는데, 직접 현장교육도 할 수 있어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8월에는 성평등을 주제로 제작된 그림책 '다녀왔습니다' 온라인 출간식 진행을 맡았어요. '위드코로나'시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어요. 광산구청장님 인터뷰도 할 수 있었고요.(웃음)

동아리 활동이 학업과 병행하기에 어렵고 힘들 것 같다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를 잊게 해줘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요.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영자의 밥상’으로 행복을 배달합니다

광산구 봉사 엔터테이너 최영자 씨

결혼하자마자 남편 따라 시작한 봉사가 올해로 벌써 27년째네요. 가족과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방법을 생각하다가 동네 잔치상을 기획하게 됐어요. 저는 음식을 만들고 남편과 아들은 상 차리고 치우고, 잔치상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자의 밥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7년간 꾸준히 달려오니 벌써 1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네요. 월 2회, 140만 원 정도 자비를 들여 밥상을 차려요. 남편의 재정적 도움이 크죠. 요리강습, 요양원, 복지관 감사도 하며 비용을 마련합니다.

영자의 밥상을 즐겁게 하고 싶어서 무대도 다양하게 꾸몄어요. 오랫동안 배운 판소리로 흥을 돋우고 가야금의 구성진 가락에 민요춤까지 보태니 현장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함께 공연해준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를 하고 싶네요. 무대를 즐기는 어르신들을 보면 절로 힘이 났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아쉬워요.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하루는 반찬을 배달하는 어르신 집에 아들이 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거지냐’라며 반찬을 밖에 내동댕이치더라고요. 가슴 아팠지만, 다음날 또 웃으면서 방문해 반찬을 드리고 왔어요. 배달을 갔는데 주소가 달라 발을 동동 구른 적도 많았어요.

광산구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통비 같은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과 함께하는 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글 김정아<2020소셜지기단> 사진 심인섭<2020주민리포터>

51세.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광산구 여성자율방범대를 창단해 작년까지 3년 동안 대장을 맡았다. 집수리 지원 바람꽃주거환경개선 봉사단 활동도 7년째.

#재능기부봉사 #힐링봉사단 #에그리나봉사단



자치로 물들인 아름다운 동행

주인의식으로 행복한 마을 가꾸는 송소옥 씨

처음엔 '자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동네에서 재미있게 놀고 싶었다. "같이 놀면서 좀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 마을활동가의 길로 이끌었다. 마을의 주민이자 주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첨단2동 주민자치의 문을 두드렸다. 좀 더 생생한 마을 현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자치를 통해 함께 풀어갔다.

주민자치회의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권역별, 연령별, 직업별 다양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선 사람이 필요했고,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했다. 주민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웃음)

자치에는 주민이 빠질 수 있으랴. 첨단2동은 광산구 최초로 주민총회에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작년엔 첨단2동 주민 15%인 6,6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7,300여 명의 주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마을의제를 함께 결정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주민이 투철한 주인의식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구나 싶었다. 감동이었다.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주민자치이다. 주민자치와 행정이 항상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를 때,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첨단2동을 온마을 배움터로 만들어 보고 싶다. 나이와 직업 구분 없이 누구나 선생님이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시도한다면 더 행복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위기를 극복하는 힘, 내 곁에 있는 동료들

광산구 첨단종합병원 선별진료소 의료진

세계가 부러워하는 '코로나19 K-방역'은 의료진들의 분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돌본다. 첨단종합병원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병원장 포함 총 32명. 전문의가 직

접 나서 코로나19 검체채취를 하고, 격리자와 확진자 진료도 맡는다. 각별한 팀워크와 책임감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숨은 영웅'들을 만났다.

#첨단어벤져스 #덕분에 #고맙습니다

글 양선호<홍보실>

사진 김예리<광주매일신문 기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사명감으로 했죠. 진료부터 코로나19 검체채취까지 전담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음압격리실에서 바로 검사해요. 병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있어요. 전문 의가 코로나19를 직접 검사하는 병원은 저희가 유일할 거예요. 영상의학과 원장님 협조 덕분에 호흡기뿐만 아니라 웬만한 엑스레이와 CT도 다 찍고요. 병원장님께서 진료 자율성을 많이 인정해주세요.

박규일(56세, 동구 산수동, 응급의학과 과장)

사실 처음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공포였는데, 지금은 내성이 생겨서 큰일이야 있을까 싶어요.(웃음) 특히 코로나19 격리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없으니까 시보건정책과와 각 구 보건소에서 협조요청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해당 진료과 관련 전문의가 오셔서 함께 봐주세요. 국민안심진료소와도 호흡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요.

강은미(48세, 서구 화정동, 적정진료관리실 실장)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라는 문구를 좋아해요. 의지라는 건 내 마음이고 생각이고, 가치관 아니까요. 힘들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고, 동료들과 함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가 왜차해서 퇴원할 때 가장 부듯하죠. 간혹 한 번씩 편지를 받는데,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 때 너무 고마웠다고, 조그마한 손으로 전해준 편지가 기억에 남네요.

최경희(45세, 월계동, 응급실 수간호사)

광주 첫 확진자가 나오고, 2월4일 광산구 지역 병원이 격리 됐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아비규환이었거든요. 저희 병원 감염병대응팀 덕분에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영남대학교 아프가니스탄 유학생이 생각나요.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때라, 열이 나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택시타고 광주까지 왔더라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서 얼마나 긴박하게 흘러갔는지 몰라요.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서는데,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웃음)

오현선(37세, 산월동, 감염관리실 간호사)



한수진 양의 글러브와 야구공
(인간극장 4)
잘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를 맞았을 때 그 희열감이란 대한민국 여자야구 파이팅



조혜성 씨의 그림책(인간극장 8)
동아리 'ODA가다'는 광산구와 공동협력해 2016년부터 총 3권의 그림책을 출간했다. 좌측부터 구강보건, 손 씻기 위생, 성평등 관련 '글로벌 건강교육 그림책'.



오경미 씨의 치솔과 고체치약
(인간극장 6)
지구를 구하는 친환경 대나무 치솔과 씹는 치약.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레기는 없이.

천영라 씨의 지도(인간극장 15)
주민들과 함께 제작한 산책로 지도, 현지인이 알려주는 비야마을 꿀팁이 궁금하다면 비야까망이 작은도서관으로 고고!



김정제 씨의 방화복(인간극장 5)
화재출동 시 입는 방화복과 방수화, 산소통 등 장비무게는 20kg이 넘는다. 소방차 옆 차고에서 미리 세팅해 둔 방수화와 하의를 동시에 입고, 이동하면서 상의와 공기호흡기를 착용한다.



문대식 씨의 줄넥타이(인간극장 10)
외출 시 항상 목에 걸려있는 줄넥타이. 광복회 유족회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찾았다.



이승혁 씨의 기관실(인간극장 14)
기관실이 밝기 때문에 터널이 어두워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고창길 씨의 악기(인간극장 20)
타악연주 22년 외길인생을 걸어온 고창길 씨의 대북. 풍물굿을 모태로 남네노소, 동서양 모두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작품들을 창조하고 있다.



김재나 씨의 트로피(인간극장 2)
'2020 피트니스스타 안양' 스포츠모델 부문 1위 트로피. 지금까지 받은 트로피만 수십 개가 넘는다.



첨단종합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인간극장 12)
첨단종합병원 내부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음압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 지난 호 퀴즈 정답은 **행복뉴딜**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답자 임태화, 최지원, 신미라, 최경순, 이미옥, 김경은, 우호례, 박선아, 송효정, 이민섭
(* 10월 21일까지 성함과 주소를 shyang1211@korea.kr로 보내주세요. 광산구 제작 텀블러 1개를 보내드립니다.)
- '생활방역 인증샷' 사진 공모는 11월호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배움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다큐멘터리PD를 꿈꾸는 홍영주 양



19살. 하남동, 성덕고등학교 3학년. 사회학과 진학이 목표. 수능이 끝나면 재밌는 책도 마음껏 읽고, 자전거 타고 제주도를 돌아보고 싶다고.

#다큐멘터리PD #야호센터 #뱅크 #흥사단 #배지수집가

콘텐츠 기획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학교에서 해왔던 활동들이나 관심 분야들을 보면,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을 때 가장 빛이 날 것 같아요. 시사나 교양예능 PD도 해보고 싶고요. TV나 영화를 볼 때도 '저런 자료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찍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친구랑 광주시민방송 라디오 BJ 활동도 했어요. 기획부터 녹음, 편집까지 모두 저희가 직접 맡았죠. 처음 시작하고 1년 동안은 '잡화점Y'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도 했어요.

잡화점에서 여러 가지를 파는 것처럼 우리도 잡화다식한 이야기를 털어보자는 취지였죠. 또래 친구들을 위해서 뉴스 단어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날도 있었고, 저희끼리 가벼운 수다를 떠는 날도 있었고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송은 학생회장 언니를 게스트로 초대했던 4·16 특집이었어요.

중학생일 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주로 했어요. 리싸이클, 연극, 야호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들이었죠.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에 와 보니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서 살아야 하겠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을 성적으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누잖아요. 1등급 들겠다고 친구들을 제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못하기를 바라야 하는 구조니까요. 그럼에도 3년을 그렇게 살다보니깐 어느새 저도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후배들은 이런 경쟁구도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게 즐거워요. 제 꿈은 PD지만, 무슨 일을 하든 끊임없이 배우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성실함과 책임감이 생명이죠

‘희로애락’ 안고 달리는 철도 기관사 이승혁 씨

지하철은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지만,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의 존재는 낯설 수도 있겠다. 철도 대학을 나와 운 좋게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다. 첫 운행의 기억이 생생하다. 많이 떨렸지만, 1시간 즈음 지나고 나니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웠다. 기관실이 밝기 때문에 어두운 데 있다는 무서운 생각은 들지 않는다.

기관사는 여러 장점이 많은 일이다. 상사 잔소리들을 일도 없고.(웃음) 물론 혼자서 많은 승객을 책임져야하니 성실함과 책임감은 기본이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로 이직해 일한 지는 4년 정도 되었다. 근무시간에는 보통 소태~평동 구간을 3회 정도 왕복한다. 교대 근무라 시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늘 핸드폰 알람을 5개 정도 맞추고, 출근도 여유 있게 한다. 지각을 해 본 적은 없지만, 지각하는 꿈을 꾸는 적은 많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늘 사소한 것도 잘 챙기고 지키려고 한다.

유별난 승객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생기지만,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일한다. 양동시장역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니 조금 더 기다려드리고, 잘 탑승하셨는지 특히 신경을 쓴다. 그걸 알아채고 내릴 때 음료수를 주시거나, 격려해주실 때 참 뿌듯하고 감사하다.

제일 좋아하는 역은 평동역이다. 유일한 지상 구간이라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다. 종종 회차선에서 계절의 변화를 담은 풍경 사진을 찍는다. 광산구에서 초중고를 나온 터라 더 애착이 가는지도.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애쓰는 기관사가 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편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29세. 산월동, 고등학교 때 여행하면서 열차 안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승객을 모시는 것이 목표다.

#철도기관사 #소태역에서평동역까지 #은하철도999

서로의 마음이 연결돼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까지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마을활동가 천영라 씨

8년 전 마을에서 작은도서관 만들기 활동을 시작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다는 바람이 나를 마을로 이끈 것이다. 도서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남아'(동네에 남아 있는 아줌마들)와 토틀 뭉쳤다. 장터에서 전을 부치고, 졸업식장을 찾아가 꽃도 팔았다. 마을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산구 지원을 받아 2013년 비아까망이 작은도서관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거점 공간, 도란도란 한옥북카페는 2015년 문을 열었다. 나 또한 '까망이 협동조합'에 참여해 10명의 카페지기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카페 운영은 매달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라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마찰도 생겼다. 구성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난관을 극복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를 맞아 고민이 많았다. 집에 혼자 있는 마을 아이들을 ZOOM 화상프로그램으로 불러 모았다. 마을 활동가들과 온택트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구를 개발했다. 수업내용에 따라 직접 제작한 꾸러미 키트를 집집마다 배달하고 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했다.

공동체라는 가치는 언제나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청소년기획단 운영,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마을 살이를 고민하고 싶다. 2년째 참여 중인 마을 활동 지원으로 각 마을마다 청소년시설과 자원이 연계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글 김우리<자유기고가> 사진 김현



46세. 비아동, 비아까망이 작은도서관 관장. 쉬 때는 바느질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실과 실이 교차되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공동체도 서로 연결되어 멋진 작품이 되기를 희망한다.

#공동보육 #놀이꾸러미 #온택트 #동남아

내 인생의 추계 공공후견인의 일상

치매 어르신의 든든한 울타리 민병애 씨

내 나이 예순일곱, 인생을 계절로 본다면 가을 즈음에 접어들었다. 40년간 세무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014년 퇴직 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을 만난 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취득한 자연스러운 계기가 됐다. 오랜 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냈는데도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교육 끝에 1호 '공공 후견인'으로 선발이 됐다. 올해 1월부터 나는 우산동에 거주하는 85세 무연고 어르신의 후견인이다. 가정법원에서 정한 후견인은 의료·사회복지·금융업무 등을 지원한다. 어르신은 치매와 골다공증을 비롯해 여러 질환을 앓고 계신다. 병원 약을 대리 처방받아 할머니께 가져다드리는 것, 통장정리나 집 계약 등 여러 사무 처리를 도울 수 있는 것도 공공 후견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낯가림이 심했던 어르신은 이제 내게 마음을 열어 집에 가려고 하면 아쉬워하신다. 안부 전화나 간식을 챙겨드리는 것과 같은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에 마음을 여셨다. 수익보다는 봉사 정신으로 하는 일이지만, 한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진심을 갖고 임한다. 의사인 두 아들도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 준다. 나도 건강관리를 위해 남편과 함께 집주변을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 광산구에서 치매센터를 개소했을 때 국가가 나서 치매를 관리를 해준다는 것이 놀라웠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공공 후견인 제도를 많이 활용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67세, 남구 봉선동,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제1호 공공후견인. 최고의 지지자는 가족,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공공후견인 #광산구치매안심센터

누가 뭐래도 나는 광산토박이

100세 시대 구민 건강지킴이 김원치 씨



49세, 수완동, 광산구 하남에서 태어난 광산구 순수 토박이. 현재는 광산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위해 작은 식사자리도 동네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하남촌놈 #광산구체육회 #건강지킴이

제 인생에서 '광산구'를 빼고 말할 수 있을 까요. 영락없는 '하남 촌놈'입니다. 하남초와 송정중, 송정고를 졸업하며 학창시절을 모두 어등산 인근에서 보냈어요. 부모님 농사를 도우려 장화 신고 질퍽한 땅에서 지게질도 하고 소에 여물도 주고요. 하남역에서 송정리역까지 기차 타고 통학했어요. 논밭이 전부였던 광산구 땅에 하남·평동·진곡·소촌산단이 들어오는 걸 지켜봤죠. 50여 년 변천사를 한눈에 보며 자랐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사회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광산구체육회에서 게이트볼과 배구부터 헬스, 트레킹까지 40여개 종목을 관리하며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된 상황이지만, 홈트레이닝 영상을 온라인 채널로 방송하기도 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생활체육 사각지대에 놓인 광산구 내 어르신들을 세상으로 끌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께 간단한 운동 동작을 알려드리며, '건강한 100세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최근 집중호우 때는 체육회 직원들과 힘을 합해 수해를 입은 시설을 찾아, 손으로 할 수 있는 복구 작업과 청소를 돕는 등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광산구가 도심권 내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많은 문화콘텐츠와 체육행사로 많은 이들이 모이는 메카가 됐으면 합니다.

글 정겨울<광주매일신문 기자> 사진 박천희

작은 손이지만 보탬수룩 커지죠

봉사활동 9,400시간 자원봉사자 오혜영 씨

봉사하는 날 아침이 밝아오면 저절로 힘이 솟는다. 갑상선암 수술에 이어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봉사에 손 놓기가 쉽지 않다. 봉사활동 자체를 치료제로 생각한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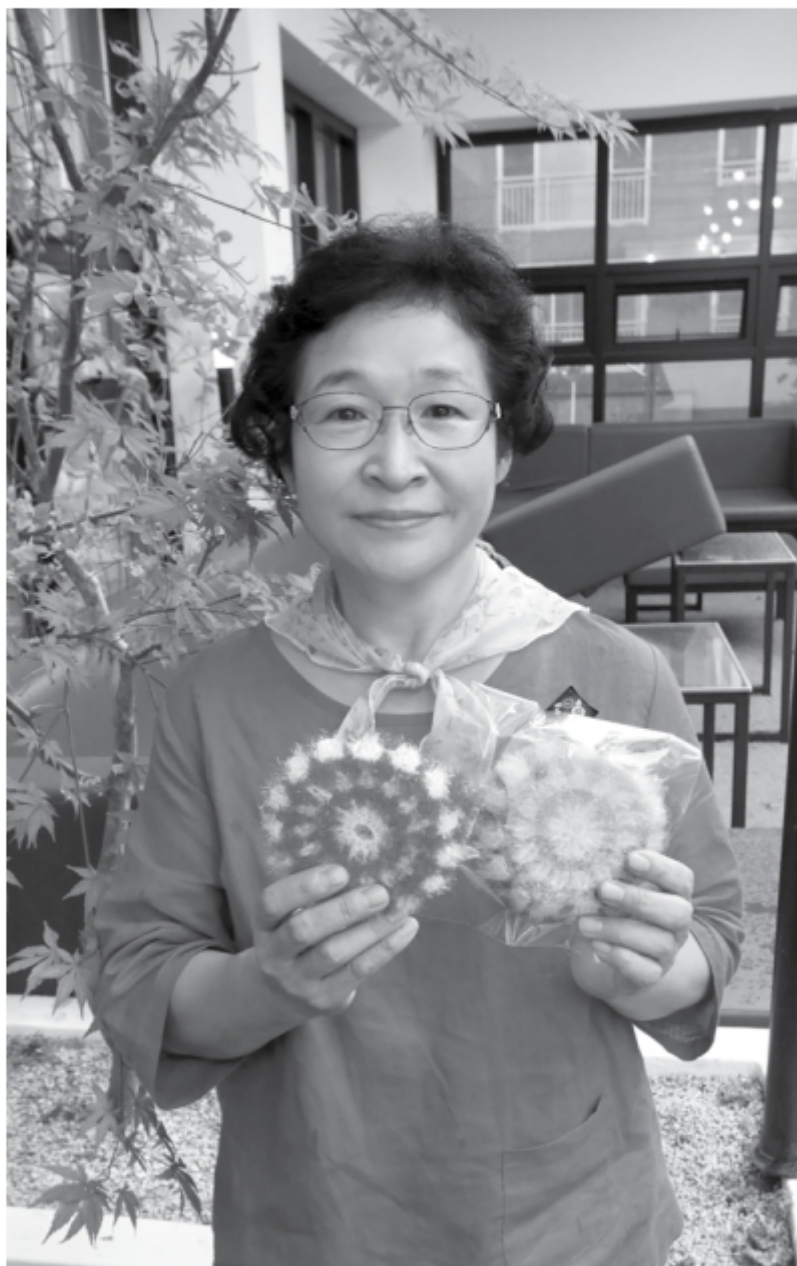
가장 마음 아팠던 봉사는 시립정신병원 목욕봉사였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병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음 아프더라. 이 봉사를 시작으로 내 '숙명'이라 생각하고 달려오다 보니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남편과 자녀들의 응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월곡2동 지사협과 함께 '안녕하세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돌봄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생활용품과 밑반찬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전달한다. 한달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네 번밖에 진행하지 못해 아쉽다.

요즘은 오전에 수해복구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마스크 제작을 돕는다. 남들은 하나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수해 피해자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힌다.

봉사는 처음이 제일 어렵다. 마음이 중요하다. 몸은 힘들지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할 생각이다. 나의 조그마한 활동 하나가 더 많은 웃음으로 변했으면 한다.

글·사진 심인섭<2020주민리포터>



60세. 월곡동. 주로 평일에는 우쿨렐레 연주 음악봉사 등 재능기부 봉사를 하고, 주말이면 보성 농장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차에 가득 싣고 돌아다니며 나눠드립니다.

#돌봄사업 #자원봉사 #행복바이러스 #따뜻한공동체

50세. 운남동. 제부의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나 광주에 정착하게 됐다. 2006년에 결혼해 아들, 딸 두아이의 엄마.

#외국인주민명예통장단 #의료통역 봉사 #고려인 #남매맘

소통 필요한 곳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요

통·번역 프리랜서 외국인 주민 김지연 씨

한국으로 귀화한 지는 20여 년이 다 되어간다. 러시아에 살고 있을 때부터 고려인 아버지 덕분에 한국말과 음식을 자연스레 접했다. 여동생이 먼저 한국으로 시집오면서 자주 오고갔는데, 한국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았다. 2013년에는 '나탈리아'에서 '김지연'으로 개명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도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뭉클하더라.(웃음)

현재는 프리랜서로 통·번역을 하고 있다. 광산구보건소·가족지원센터·출입국사무소 등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고, 동행도 한다. 끝까지 함께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의료통역 교육을 받은 후 한방병원이나 피부과, 화순 전대병원 등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 특히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의료통역을 필요로 한다. 어머니들도 일이 바빠 병원에 데려

가지 못하면, 아이를 맡기기도, 직접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광산구 '다국어 통역단'으로도 활동하며 코로나19 격리대상자나 입국자에게 앱안내, 모니터링, 물품배부를 돕는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원이라고 칭찬해주시더라. 뿌듯했다. 앞으로도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라면 어디든 불러달라.

계획이 하나 있다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부터 원활한 의료수속, 수술, 치료 후 요양할 곳이나 국내관광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로,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생각이다. 한국에서 펼치는 제2의 인생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관객의 환호가 즐거움이자 보람, 행복이다

타악그룹 '얼쑤' 대표 고창길 씨

광산농악 전통을 지키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관객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1998년부터 '얼쑤'에 들어갔으니, 벌써 22년째다.

충청남도 청양 출신이다. 친구 따라 '광주에서 한 달 살기'를 하다 광주대에 입학하고, 알바도 하면서 어느새 '광주 사람'이 됐다. 우연히 대학 축제에서 얼쑤 공연을 보고, 국악에 푹 빠져버렸다. 학교도 그만두고 입단하려 찾아갔다. 하필 그날 공연하러 갔는지 문을 안 열어주더라. 기왕 엮어진 물, 내친김에 군대도 다녀오고 제대한 지 3일 만에 얼쑤에 입단했다.

입단 후 내 뿌리, 광산농악도 배웠다. 광산농악 예능보

유자 서창순 선생님을 작고하시기 전 마지막까지 모셨다. 광산농악 이수자 진준한 선생님에게 장구도 배웠다.

올 초 1월 1일부터는 타악그룹 얼쑤 대표를 맡았다. 대표가 되고 보니 힘든 일도 많고, 고민도 많아지더라. 올해는 코로나19로 공연이 전부 취소되면서 더욱 힘들어졌지만, 단원들에게는 '버티라'고 말해 주고 싶다. 얼쑤는 대한민국 최고의 타악그룹이라 자부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 그때까지 꾸준히 연습하면서 기다리겠다.

글 유연재<광주일보 기자> 사진 마진영



47세. 도산동. 16년째 거주 중. 전 광산농악 단원으로 남구 양과동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얼쑤' 운영 중.

#광산농악전수자 #풍물놀이 #타악그룹 #타악퍼포먼스

이 달의 문화추천

쌍암공원 '별밤미술관'에 놀러오세요 김미은 <광주일보 문화부장>

아름다운 호수, 푸른 나무가 어우러진 도심 속 공원에 소박한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달빛과 별빛 쏟아지는 밤에 만날 수 있는 '별밤 미술관'이다. 코로나 19로 평범한 일상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 작은 위로가 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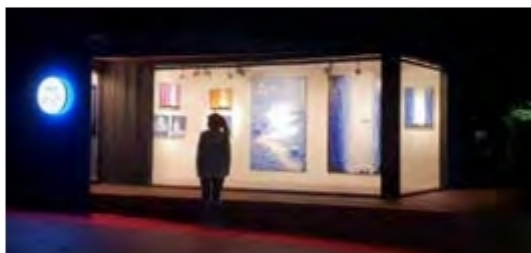
광산구 쌍암공원은 산책과 운동하는 이들로 늘 붐빈다. 넓은 공원을 걷다보면 환하게 불을 밝힌, 색다른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지난 9월 17일 개관한 '별밤 미술관', 6mx3m 크기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미술관에 걸린 건 서양화가 송필용 작가의 작품들이다. 푸른 빛과 흰빛으로 쏟아져내리는 폭포의 모습이나 매화 가지와 향아리가 어우러진 작품 등 송 작가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는 그림들이다. '별밤 미술관'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불을 밝힌다.

광주시 광산구가 문을 연 비대면 전시관 '별밤 미술관'은 코로나 19로 문화시설들이 오랫동안 문을 닫으면서 "미술관의 한 부분을 뺄까"하는 고민을 낳았다. 밤상에서 탄생했다. 일상 속으로 예술을 끌어들이는 기획으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시민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또 문화예술 활동이 막혀버린 예술인들을 격

려하고 궁극적으로 비대면 전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획이기도 하다.

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좋다. 직접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다, 편하게 산책하며 자연스럽게 그림을 볼 수 있어 위안이 된다는 것이다. 또 그림과 미술관이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낯선 공간에 들어선 그림들이 신기한 듯, 산책하는 이들은 사진 촬영을 하거나 작품을 한참 살펴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광산구는 시민들의 호응에 따라 올해 프로젝트 공간을 4곳 정도 늘려 모두 5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12 ● 공연 더 싱어즈 마티네 콘서트 Coffe Concert <가을을 노래하다>

오전 11시 장소 광산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무료 내용 향기로운 커피와 여성성악가들이 함께하는 브런치콘서트 관람 선착순 50명 관람료 무료관람&감동후불제 / 문의 062)960-8833

17 ● 공연 매직스크린아트 가족극 <오버코트>

오후 2시 장소 광산문화예술회관 내용 특별초청공연 매직스크린 아트 가족극 관람 선착순 50명 관람료 무료관람&감동후불제 문의 062)960-8833

13 ● 공연 화요문화산책 <재즈로 듣는 광주 한 바퀴>

오후 7시 30분 장소 광산문화예술회관 출연 리페이지 관람 선착순 50명 관람료 무료관람&감동후불제 문의 062)960-8253

28 ● 공연 광산인문학콘서트VI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오후 7시 30분 장소 광산문화예술회관 내용 긍정의 말보다 인정하는 말로 청춘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강연 관람 선착순 50명 관람료 무료관람&감동후불제 문의 062)960-8833

원하는 날 골라보기

● 전시 유화 단체전 <누구나 쉽게 그리는 법로스>

9, 17, ~ 10, 14, 장소 장덕도서관 아트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62)960-3992

*코로나19로 도서관 개관 시에만 관람 가능

● 전시 상사화와 함께하는 첨단1동 사진전

10, 12, ~ 10, 16, 장소 첨단동 행정복지센터 내 마을카페 다독임 관람료 무료 내용 첨단동레일의 상사화 사진 전시 문의 062)960-7704

INFORMATION

공지

2020 하반기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 공모 추진

기간 9월 1일 ~ 11월 30일

대상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유휴 주차공간 보유시설

조건 개방면수 5면 이상, 1일 연속 7시간·주35시간, 2년간 개방

내용 개방면수에 따른 시설개선비 및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지원범위 개방면수에 따라 차등지급(최고 100만원)

선정 (1차)서류·현장심사 (2차)공유주차장지원심의 (3차)지방보조금심사

문의 교통지도과 062)960-8988

온택트 상호문화존중 프로젝트

“걱정말아요~ 광산! 함께해요~ Asian”

행사 개최

일시 10월 ~ 12월 (총 5회)

진행 온라인 시민참여 행사 유튜브 생중계 또는 녹화 송출

주요행사 10. 31.(토) 드라이브루 Asian 문화페스티벌(차량퍼레이드, 장기자랑)

11. 7.(토) 비정상 대표들의 광산살이 토크 콘서트

11. 17.(화) 중앙아시아연극, 아시아엄마들이 들려주는 구연동화 등

12. 5.(토) Asian 퓨전음식 소개 및 경연대회

10월 ~ 11월 상호문화존중 영상·사진 공모전

*상기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 복지정책과 062)960-8469

대법원 통합무인 발급기 개통 안내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운영 안함

설치장소 평동산단로 184-1, 102호

발급서류 3종(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

문의 현장민원실 062)962-9301

2020 광산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웃 간 주차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내 여유 공간 또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기간 10월 말까지

신청대상

(개인주택) 주차시설이 없는 주택으로 대문개조, 담장 허물기 등을 실시하여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

(공동주택) 1996년 6월 8일 이전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 1/2 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방법 방문 또는 전화접수(광산구청 교통지도과)

절차 사전신청 →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 신청서 작성 →

공사시행 및 설치완료 신고 → 보조금 지급

지원 설치비의 90% 범위 내 지원

(한도 초과시 추가비용 개인부담)

개인주택 공사유형별 상이(최대 440만원까지 지원)

공동주택 1면당 50만원(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문의 교통지도과 062)960-898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세요

기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모든 납세자(개인, 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포함)

과세표준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세액

세율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 × 10%

전자 신고·납부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 → 단건납부(일반적), 비회원납부 가능 → 기본사항 및 납부세액 입력완료 → 납부하기

문의 세무2과 062)960-8168

의회소식

광산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광산구의회가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을 포함해 조례안과 일반안, 결의안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

했다. 또한 예산결산·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원구성을 완성했다.

<의원발의 주요안건>

김은단 의원

▶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낭비 최소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김미영 의원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오월정신과 역사적 의미 전승을 위한 5월 18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련한 사항 규정

박현석 의원

▶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보호와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규정

박경신 의원

▶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그린뉴딜·상생먹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 개최

9월 22일 광산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그린 뉴딜과 상생 먹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9월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그린뉴딜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연구회'의 첫 공식 활동으로, 초청 강연과 자유토론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향후 뉴딜 정책 연구 및 조례 제정과 광산구 도시계획 방안에 대해 연구할 예정. 조영임 대표 의원을 중심으로 박경신, 이귀순, 김태완, 유영종 의원이 활동 중이다.



의회소식

“송신탑 이전·철거 및 부지 공공용도 활용”촉구

광산구의회가 9월 11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주거지역 인근 송신탑 부지 공공용도 활용 촉구안'을 채택했다. 촉구안은 신창 KBS3라디오 송신탑 부지가 지속된 공공용도 활용 요구에도 주민들 모르게 민간사업자에 매각된 것은 관련 기관들의 안일하고 무심한 행정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웅암공원 MBC라디오 송신탑, 수완지구 KBS1라디오 송신탑을 이전·철거해 해당부지를 주민편의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공공용도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촉구안은 한국방송공사, 광주문화방송, 방송통신위원회,



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송부됐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광산구의회가 9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과감한 권리 이양과 재정 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뒷받침을 강조한 것.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송부됐다.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부대 위문품 전달

광산구의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인근 부대를 찾아가 위문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 특히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서준 503보병여단 1대대,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들에게 감사의 표현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제29회

용아 박용철 전국백일장

나 두 아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아 가련다.

아늑한 이 항균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뭇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헤살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아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아 간다.

2020. 10. 5.(월) ~ 10. 13.(화)

경연부문 글짓기(운문·산문)

예선주제 자유(지정하지 않음)

작품규격 1인 1편(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바탕체) 운문 : A4용지 2매 이내 / 산문 : A4용지 5매 이내

참가대상 전국 초·중·고 학생 (같은 연령대 청소년) 및 대학생(일반)

원서교부 : 광산구청 및 광산문화원 홈페이지 ※ 광산구청 홈페이지 <http://www.gwangsan.go.kr/> ▶ 뉴스·소식 ▶ 세소식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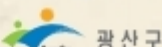
접수방법 : 우편(등기), 이메일(rmsggh509@korea.kr)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 문화예술과

- 작품접수는 10.13.(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이메일 둘 다 해당)
- 작품접수 시 참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 *이메일 접수 시 신청서 자필 작성 후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 이메일 접수 시 파일명: 초등부/중등부/고등부/일반부_이름_작품명(*예시: 일반부_박용철_떠나가는 배)

문의 광산구 문화예술과 Tel. 062-960-8772

주최·주관



광 산 구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산문화원

지면을
드립니다

동아리 활동, 알찬 행사 등 주민들과 널리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광산구보
뒤표지에 무료로 실어드립니다. 게재 문의 미디어팀 062)960-8047

* 상업목적의 광고 게재 여부는 별도 협의(유료) 후 결정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